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5년 10월
VOL.

기도월력 282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 이사야 60:1 -



10월 29일 수요일 / 알제리 (19위)

대학생 메리엠의 부모는 딸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알아채고는 집에 가두었습니다. 엄마는 개종을 정신병이라며 약물로 치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메리엠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30일 목요일 / 이집트 (40위)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인을 거의 보호하지 못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기독교 여성들이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기독교 아동들도 자주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집트의 특정 지역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은 무슬림 가족이나 이웃에게 압력을 받거나 미움을 살 수 있고, 보안 당국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를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0월 31일 금요일 / 이란 (9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강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메헤란 샴루이(37)는 가정교회 예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에빈 교도소에 갔습니다. 에빈 교도소에는 다른 기독교인 조셉, 나세르 및 하킴이 갇혀 있습니다. 여성 신자인 미나와 아이다도 카르차크 교도소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메헤란, 조셉, 나세르, 하킴, 미나 그리고 아이다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 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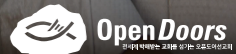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10월 24일 금요일 / 몰디브 (16위)

몰디브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는 지상낙원 같은 섬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몰디브 사람에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를 100% 무슬림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회에서 고립이 됩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독교인은 조금 더 자유롭지만 모임이 엄격하게 감시됩니다. 몰디브에 종교의 자유가 생겨 많은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10월 25일 토요일 / 베트남 (44위)

카동족 부부 민과 투이는 전통 신앙을 버리고 2024년 9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민의 눈 질병이 호전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개종을 반기지 않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막는 등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웃들은 부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철망으로 막고, 다른 길에는 깨진 유리를 뿌리는 등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은 공동 우물 사용도 금지하며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민과 투이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와 믿음을 지키며,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6일 주일 / 북한 (1위)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으며,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씨와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채 생사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10월 27일 월요일 / 러시아 (56위)

러시아 점령 지역인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서 경찰은 여러 차례 교회를 급습했습니다. 특별히 침례 교단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선교 활동' 혐의로 목회자와 교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예배를 촬영하고, 예배 장소 수색 및 서적을 압수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 지역에서 예배 금지, 교회 폐쇄, 목회자와 신자를 납치하는 등 종교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불법적 탄압이 멈춰지길 기도합니다.

10월 28일 화요일 /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오픈도어 기도학교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 중입니다. 강사님과 통역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참가자들이 브라더 앤드 류가 가졌던 신앙의 유산을 잘 배우고, 오픈도어 기도 용사로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르면 강제 개종은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타라칸드에서만 40건 이상의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인도 교회가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0일 월요일 / 카메룬 (43위)

최근 가장 북쪽 지역에서 보코하람의 공격이 증가해 기독교 아동 5명이 납치되고 여성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9월 초에는 마을 세 곳이 공격을 받아 5명이 숨지고 교회와 보건소, 가옥과 재산이 불탔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실종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1일 화요일 / 말레이시아 (51위)

동말레이시아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성경 훈련과 멘토링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학 진학 등으로 도시로 떠나기 전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배우며 성경에 관한 갈급함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디오게임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즐기며 신앙이 성장했다고 나누었습니다. 피비는 감정 기록과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다른 이는 음란물 중독에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10월 22일 수요일 / 스리랑카 (61위)

아누샤는 남편을 잃으면서 마을에서 유일한 기독교 동반자도 함께 잃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은 아누샤를 비난하며 교회에 가지 말라고 강요했고, 심지어 “교회에 가지 않으면 돕겠지만, 계속 가면 눈을 빼앗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누샤는 한때 교회를 떠났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해 결국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친척들은 그녀를 버렸고, 가족은 생계와 관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아누샤와 자녀들이 마을 사람과 친척의 반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길 기도합니다.

10월 23일 목요일 / 토고 (66위)

북부에서는 JNIM(이슬람과 무슬림을 지원하는 단체) 무장 조직이 올해에만 15차례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54명이 희생되는 등 치안 불안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많은 기독교인이 집과 생계를 버리고 피난해야 했고, 교회들도 문을 닫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고 북부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굳건히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10월 1일 수요일 / 온두라스 (65위)

8월 9일 예배 직전 목사 월머 카스테야노스가 마체테에 의해 살해되었습다. 지난 6월에도 온두라스에서 세 명의 목사가 각각 살해되었고, ‘기도 행진’을 준비 중인 마리오 바네가스 목사는 계속해서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온두라스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지도자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2일 목요일 / 러시아 (56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있는 침례교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들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습니다. 쿠르가닌스크라는 곳에 있는 어느 큰 교회는 약 600명이 모이는데, 교회 문이 잠겨서 지금 3개월째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침례교 교회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다른 교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종교 탄압을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10월 3일 금요일 / 카자흐스탄 (38위)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제정된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에 관한 법’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종교 단체의 등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등록하지 않은 단체는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거나 모임 장소를 마련하려면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정부의 감시가 심해지고, 예배 모임이 단속당하거나 성도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종교법으로 인해 박해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교회가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10월 4일 토요일 / 인도네시아 (59위)

아체 출신의 젊은 여성 데시는 기독교 친구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에 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부부를 만나 진심 어린 사랑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가족에게 버림 받았지만,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데시는 아체 지역에서 신앙 때문에 주목받지 않도록 히잡을 쓰고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시가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길 기도합니다.

10월 5일 주일 / 나이지리아 (7위)

8월 11일 오전 7시경, 예레와타 지역에서 풀라니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6월, 200명 이상이 잔혹하게 살해된 고풀라 지역 학살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예레와타는 계속되는 공격과 치안 부재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난 중이며, 식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레와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10월 6일 월요일 / 팔레스타인 (62위)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시의 주민들을 남쪽으로 옮기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건물로 피신해 온 상황입니다. 오픈도 어선교회는 약 600명의 기독교인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22개월 넘게 교회에 머무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10월 7일 화요일 / 니카라과 (30위)

2025년 8월 19일, 오르테가 정권은 기독교계 단체를 포함한 14개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보건, 식수, 주거, 중독 회복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재무 보고서 미제출과 이사회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폐쇄를 정당화했습니다. 폐쇄된 단체 중 다수는 뚜렷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진 조직입니다. 지금 정권은 2018년 이후 3,700개 이상의 시민사회 단체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기독교 단체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10월 8일 수요일 / 라오스 (22위)

북부에 사는 50대 몽족 여성 바니와 야네는 2024년 예수님을 믿은 후, 남편에게 신앙을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니는 신앙을 공개한 이후 마을 주민들과 남편에게 지속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자 남편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두 여성 모두는 건강이 악화하고 경제적 지원이 끊긴 상황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바니와 야네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9일 목요일 / 나이지리아 (7위)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지도자 데이비드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두 여성을 도왔습니다. 그 후 그는 납치되어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9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 7월 고등법원이 부당한 유죄 판결을 뒤집었지만,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에 관한 사법부의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을 보여준 실제 사례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법 정의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0일 금요일 / 코모로 (42위)

코모로 제도에서는 수니파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도 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으며, 기독교를 전파하는 현지 기독교인은 기소됩니다. 기독교 예배는 공개적으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정된 세 곳의 교회에서만 합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코모로의 법이 바뀌어 누구나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1일 토요일 / 중앙아시아

기독교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에 참석하려 하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19세 소녀는 계부로부터 히잡 착용을 강요받고 외출이 금지되어 일주일째 집에 갇혀 있습니다. 또 다른 17세 청소년은 부모에게 캠프 참석 위임장을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캠프에 가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은 친척과 이웃, 친구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청소년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2일 주일 / 모로코 (21위)

모로코는 99%의 무슬림 사회입니다. 기독교인은 공식적인 모임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가정 교회에서 모입니다. 가정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폭력적인 공격에 시달려 왔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로코에서는 수많은 선교사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모로코 기독교인들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0월 13일 월요일 / 필리핀 (78위)

남부에서 50명 이상의 무슬림 출신 청년 신자들이 ‘여호수아 청년 지도력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알리아는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청년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2023년 알리아의 아버지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딸의 신앙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 특히 이모는 조카가 가족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여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알리아가 주님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4일 화요일 /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여러 지역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의 현실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피해 지역에서는 가혹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독교 공동체를 충분히 보호하지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와 협력 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국 정부, 언론 및 교회에 이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하고 힘 있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0월 15일 수요일 / 니제르 (28위)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재 니제르 기독교

인은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습니다. 니제르는 이슬람으로부터 큰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니제르 서부와 남동부 농촌 지역에서는 지하디스트 활동이 많이 늘어나 예배와 모임은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비밀리에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소년들은 극단주의자의 표적이 되어 강제로 소년병으로 끌려가거나 강제 노동을 합니다. 니제르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6일 목요일 / 에티오피아 (33위)

에티오피아 전역에는 과격한 무슬림 단체가 있어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 가정을 공격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가족에게 학대를 받고, 이혼 시 생계와 자녀 양육권까지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어린 소녀들은 강제로 결혼을 당합니다. 오픈도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에티오피아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실시하는 박해 대비 훈련, 여성과 청년의 경제 자립 훈련, 지도자 훈련 및 새 신자를 위한 성경적 대응 훈련 등이 에티오피아 교회와 성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 카타르 (41위)

카타르의 기독교인은 비무슬림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은 거의 교류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이주 근로자 교회만이 도하 외곽의 공식 종교 단지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카타르 시민들은 이곳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주민들은 무슬림에게 기독교에 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타르는 모든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카타르의 기독교인은 매우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카타르 기독교인에게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10월 18일 토요일 / 모리타니아 (23위)

모리타니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모리타니아에서 기독교는 서구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여겨지며,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은 당국과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적대감을 받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 기독교인은 소수입니다. 세례는 비밀리에 진행되지만, 많은 신자가 이조차도 매우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모리타니아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신자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9일 주일 / 인도 (11위)

인도 우타라칸드 주 정부가 종교자유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종 금지법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2018년에 제정되고 2022년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에 따